

#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Newsletter

(제2017-1호) / 발행일 2017년 3월 15일 / 발행인 손 병 옥 / 발행처 한국윤리교육학회

## 韓國倫理教育學會報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가좌동) 경상대학교 사범대학윤리교육과사무실(303동611호)

E-Mail: koreaethics@naver.com, keea@keea.info

연락처: (055) 772-2140, 팩스: (055) 772-2149 Homepage: <http://www.keea.info/>

회비/후원금/입금계좌: 302-1157-6609-21 (농협). 예금주: 손병옥(한국윤리교육학회)

### 권두언

한국윤리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 학회 제9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첫 뉴스 레터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학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3일 부산 경성대학에서 제8기 집행부로부터의 인수 및 인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본 학회를 이끌어 오신 제8대 박장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한국윤리교육』 제43집이 발간되어 배부되었습니다.



최근 통합사회 연계전공 자격취득여부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사범대학에서 통합사회 연계전공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윤리교육과가 교육과정의 동등한 주체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과 입학생들이 통합사회 연계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이 문제가 향후 도덕·윤리교육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2일 경상대학교 이상호 교수(총무이사)와 충북대학교 김남준 교수(이사)가 교육부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거듭한 끝에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침 이 날은 제9기 집행부 출범 후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오후에 교육부를 방문하였습니다.

2월 22일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19일(금)에 개최될 춘계학술대회 주제와 일자, 그리고 장소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임원 회비 조정에 관하여, 기존의 임원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일정하게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현 학회지의 판형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지금의 B5판형을 신국판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고, 본 학회 회원 중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자 추천을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학회에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신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학과장님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오후에는 본 학회 및 한국윤리학회 임원진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교육부를 방문하여 통합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 실무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통합사회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부 담당 실무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만큼의 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도덕·윤리교육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들과 이번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전국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학과장 협의회(가칭)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논의한 뒤, 필요하다면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제9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있었던 중요한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오는 5월 9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선정국에 돌입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침 사드문제로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전제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내외외환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 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실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무언가 대안적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5월 19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될 한국윤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이번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저의 인사에 거듭합니다. 늘 건승하신 가운데 회원 여러분의 왕성한 학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15.

한국윤리교육학회 회장 손병욱 배상

## 한국 윤리교육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참가자 공모안내

- 대주제 :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의 방향 탐색
-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13:00-18:00
- 장 소 : 경상대학교 BNIT 204호
- 주 최 : 한국윤리교육학회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 ◆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관련 주제
  - ◆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관련 주제
  - ◆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관련 주제
  - ◆ <윤리상담과 인성교육> 관련 주제
  - ◆ 기타 윤리교육 관련 주제
- 신청 방법
  - : 학회 이메일(koreaethics@naver.com)로 <3월 15일>까지 송부

## 회비 납부 안내

- 농협 302-1157-6609-21 예금주 : 손병욱(한국윤리교육학회)
  - ◆ 은행과좌 이용 시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소속대학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 경상대)
  - \* 뉴스레터, 논문투고안내문, 학회 홈페이지에서 연회비가 달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 회비: 회장 : 100만원      부회장 : 20만원      평생회원 : 30만원  
         상임이사위원장 : 15만원      분과위원회 위원 및 이사 : 10만원  
         일반회원/년 30,000원      신입회원/가입비 20,000원  
         기업자격 : 일반회비 - 10만원/년납. 평생회비 - 50만원/1회납, 가입비 - 3만원
  - ◆ 체납 회비를 완납할 경우에만 학회지 논문투고 가능
  - ◆ 2년 체납 - 뉴스레터 발송 중단 / 3년 체납 - 회원자격 상실
  - ◆ 체납 회비 완납할 경우, 회원자격 회복
-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 (2017년 3월 15일 현재)  
손병욱(회장:경상대) 1,000,000원    이상호(총무이사:경상대) 150,000원    송선영(위원:경상대) 100,000원

## ■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7년 3월 15일 현재)

이선재(사무국장) 30,000원

※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납부자 명단에 누락된 회원님께서서는 바로 한국윤리교육학회 사무국(055-772-2140) 또는 이선재 사무국장(010-4442-5874)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논문집 판형 변경 안내

- ◆ 학회지 발간 비용 부담 증가, 학회지 보관 및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현재 B5 인쇄 판형을 신국판으로 변경
- ◆ 변경 시 최소 20만원 비용 절감 효과
- ◆ 판형 변경에 따라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사업 등의 불이익은 없음

### 학회 홈페이지 변경안내

- ◆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제공, 전문업체인 학술교육원에서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관리.
- ◆ 2017년 2월 중 개편 완료. 기존 홈페이지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사용

### 학술논문집 발송 안내

- ◆ 최근 2년간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회원들에게만 발송
- ◆ 평생회원은 계속 발송

### 학회 연구윤리 안내

- ◆ 한국윤리교육학회는 연구의 진실성을 기초로 삼는 순수학술연구단체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의 회원은 논문의 작성과 투고, 심사, 출판 등 모든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윤리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의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논문 투고자는 자율적인 자기논문검증과 같은 최소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 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학회홈페이지(<http://www.keea.info>)에서 확인하여 규정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논문투고자의 경우에는 논문투고 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안내하는 <KCI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https://www.kci.go.kr/>)에서 자율적인 자기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